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 레거

이환주 남원시장,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표... "적극 환영"

이환주 남원시장이 11일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하면서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 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폐교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길고 긴 골목을 함께 해왔던 전북 도민과 남원시민, 그리고 행정, 지역 정치권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아픔과 상실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녹아 내리는 심정임을 토로했다."며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원시가 지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며, 결정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을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확정·발표함으로써 전회위복과 지역사회에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 도민과 시민, 정치

권과 대학유치추진위원회 등이 모두 합심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빠른 시일내 설립·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남원시에서는 세계혜택을 검토하고 주변환경 기반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빠른 기간내 설립·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중한 건의와 내실있는 전문 보건의료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10개 지구 공모

남원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사업에 10개 지구를 공모 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8개소(303억)를 완료했다.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 2개소, 마을단위 11개소 사업(총사업비 512억)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에는 13개 지구 14

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국비 134억원 등 총사업비 19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비단계인 소규모 자체사업, 현장포럼, 마을리더 교육,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필수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남원시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추진방식에 발맞춰 선행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높였다.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마을 특색의 장점은 살리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순창군이 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한다.

봄이 되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산림보호계장을 총괄반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편성해 운영해 나가게 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및 축사시설 등 불법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야생화, 조경수, 관상수 등)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반사회 및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산림내 각종 불법 행위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자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유치 속도

순창군이 급격한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화 연구 컨트론타워인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과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건강한 노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노화 고령사회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이 많아 국립노화 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농생명 R&D특구인 전북도의 발전 정책성과도 잘 부합해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유치 노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순창군은 이미 중앙관련 부처와 기재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권과도 공감대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일 행정부지사

를 통한 전북도 관계자들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립노화연구원 순창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전북도의 발 빠른 움직임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국가차원에서 노화연구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군 측은 최소 200억에서 4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노화 기초 R&D 체계 구축과 노화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국내외 노화관련 기관 협력기반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건강한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노화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와 생산적 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복숭아 주산지 도약 기반 마련

임실군이 과수복숭아를 육성하는 정품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복숭아 주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발작품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의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복숭아 생산기반과 유통시설을 확대하는 동력을 얻게 된 임실군은 향후 전국적인 복숭아 주산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발작품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과 된 공동 경영체를 육

성, 유통여건을 개선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14개 조직이 신청했으나, 과수 복숭아 분야에서는 임실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임실은 최근 복숭아의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APC의 시설이 협소하고 선별시설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APC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농가수요를 충족 시킬 수 없어 시장 경쟁력 우위 선점에 큰 어려움이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복숭아 선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산지유통센터의 오랜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 '착착'

2021년까지 완공

300만 관광객대를 열기 위한 임실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인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사계절 장미원 조성을 착착 진행 중이다"고 11일 밝혔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조성되는 사계절 장미원은 총 사업비로 70억원을 투입, 5만㎡ 규모에 장미정원, 장미터널, LED 야간경관, 수경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군은 지난 해부터 장미원 조성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유화 박사팀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방문, 기존 조성 부지와 신규 장미식재지에 대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언덕을 절개해 치즈를 형상화한 유럽형 공원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해 세 번째로 열린 축제에는 4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300만 관광객대를 열기 위한 임실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양에서 장미가 생육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어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유화 박사팀은 장미원 예정지에 대한 임실군 토양분석자료와 전문가 진단을 종합 분석해 장미생육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단 결과 장미생육에 적합한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개량제 사용과 양이온 치환능력을 높여서 배수력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토

양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장미를 식재토록 했다.

군은 치즈테마파크의 자연경관과 구조물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조경 시설물 배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 브랜드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장미원을 조성할 계획인 만큼 기본설계와 토양관리, 품종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미원이 조성되면 봄에는 장미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열어서 향후 5년내에 매년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